

독해연습_추론문제

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이 모두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몇 해 전에 깨달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 이 일은 오랫동안 연기해 왔으므로 내 여생을 다른 것에 소비한다면 죄를 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내 정신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있고, 은은한 적막 속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의견을 진지하고 자유롭게 전복시켜 볼 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모든 의견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성이 설득하고 있는 바는 아주 확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명백히 거짓인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의견들 각각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견 전체를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견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끝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기에, 기존의 의견이 의존하고 있는 원리 자체를 바로 검토해 보자.

- ① 의견들 사이에는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있다.
- ② 거짓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무너지면 토대 자체도 무너진다.
- ③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의심할 수 없다.
- ④ 그동안 거짓이면서도 참인 것으로 간주해 왔던 것을 하나하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⑤ 어떤 사람의 최초의 토대가 되는 의견은 그 사람의 다른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

2. 다음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엡실론 B의 특성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성운*이 중력 수축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질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질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이 되고 만다. 태양계의 거대 행성 목성이 그런 경우이다. 그렇지만 간신히 턱걸이해서 별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별이 바로 갈색 왜성이다. 유럽남천문대(ESO)의 천문학자들은 태양 근처에서 어둡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별을 발견했다. 태양에서 12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별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 중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갈색 왜성으로 밝혀졌다. 엡실론 B의 특성은 유럽남천문대의 3.5 m NTT(New Technology Telescope)로 확인되었다. 이 갈색 왜성은 태양계의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약 45배 정도 크기이며, 표면 온도는 1,000 °C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소위 거대한 행성과 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T왜성의 범주에 속한다. 엡실론 B는 가장 가깝고 가장 밝은 T왜성인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별의 연구를 통해 다른 특이한 천체의 진화와 형성은 물론, 행성과 별 사이의 경계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성운(星雲, nebula) :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가스와 먼지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

<보기>

- ㉠ 지금까지 알려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갈색 왜성이다.
- ㉡ 지구에서 볼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다.
- ㉢ 별이 행성으로 쇠퇴해 가는 진화 과정의 중간에 있는 갈색 왜성이다.
- ㉣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 ㉤ 중력 수축으로 생성되었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 ⑤ ㉡, ㉢, ㉣ | |

3.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명한 경제학자 베어록(P.Bairoch)이 미국을 가리켜 근대적 보호주의의 모국이자 철용성이라고 표현한 바 있듯이, 아마도 유치산업(幼稚산업(産業))* 장려정책을 가장 열성적으로 시행한 국가는 미국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 학자들은 이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지식인들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유럽 산업혁명 연구의 권위자인 경제사학자 트레빌콕(C. Trevilcock)도 1879년에 시행된 독일의 관세인상에 대해 논평하면서 당시 '자유무역 국가인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관세를 인상하고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관세가 높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의 중요성은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스(D. North)는 최근까지 미국 경제사에 관한 논문에서 관세에 대해 단 한 번 언급하였는데 그나마 관세는 미국의 산업 발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매우 편향적인 참고문헌을 인용하면서 “남북전쟁 이후 관세의 보호주의적 측면이 강화되었지만 관세가 제조업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믿기는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고 공정하게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신흥공업국들이 펴온 유치산업 보호정책이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고, 미국 경제발전에 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의 식민지 시대부터 국내산업의 보호는 미국 정부의 현안 문제였다. 영국은 식민지 국가들의 산업화를 바라지 않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차분히 실행하였다. 미국이 독립을 맞이한 즈음 농업 중심의 남부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정책에 반대하였지만 초대 재무장관인 해밀턴(A. Hamilton)으로 대표되는 제조업 중심의 북부는 보호주의 정책을 원하였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났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후 미국 무역정책의 골격이 보호주의로 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낼 수 있다.

* 유치산업 : 장래에는 성장이 기대되나 지금은 수준이 낮아 국가가 보호하지 아니하면 국제 경쟁에서 견딜 수 없는 산업

- ① 미국 학자들은 자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 ②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배한 것은 자유무역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 ③ 미국의 경제발전이 자유무역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 ④ 일반적으로 후발 산업국들은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취하였다.
- 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후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되었다.

4.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사회적 가치가 그릇된 논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릇된 논리에 의하면, 갓난아기의 초기 두뇌상태가 백지상태로 비어 있지 않고 저마다 다른 특성의 자질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별에 따라, 인종에 따라, 개인에 따라 선천적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재능, 관심, 성향을 보인다면 정치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핑커는 이러한 생각이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전제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한다.

잘못된 생각이란, 우선 인간 집단 간에 서로 생물학적 차이가 있다면,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선입견이다. 그리고 집단 간 생활수준의 차이가 선천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위적인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는 생각이다. 또한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하거나 미추(美醜)를 느끼는 방식이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면,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생학적 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지식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선천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끔 하였고 본성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끔 한다. 핑커는 이런 종류의 논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에 관한 어떠한 발견도 그렇게 끔찍한 의미로 연역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면 결국 차별, 억압, 대량 학살이 용인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고방식에 있다.

핑커의 말대로 갓난아기의 초기 상태가 백지라는 가설은 인간에 대한 연구를 왜곡시켜왔고 이에 따라서 다른 제도적, 개인적 선택 사항들을 왜곡시켜 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차만별의 본성적 개성들이 평등을 비롯한 우리의 근본적 가치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 ①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에 따른 능력의 차이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② 인간 개개인 또는 집단간의 선천적인 차이는 나치가 평등에 대한 인간적 권리를 부정하고, 유대인을 학살한 것을 정당화시켜 준다.
- ③ 갓난아기의 두뇌는 백지상태가 아니라 저마다 차이를 지닌 본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형성된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차별화 하여 대우해야 한다.
- ④ 한 국가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과학기술력 등에는 국민들의 유전적 자질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국민성 계발을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 ⑤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가치와 생물학적 사실을 혼동하였다.

5.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파스퇴르가 짧은 휴가를 떠나면서 닭콜레라 세균 배양접시를 방치해 둔 덕에 멋진 행운이 일어났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한 파스퇴르는 방치되었던 접시의 세균을 닭에게 주사하였다. 놀랍게도 닭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상적인 세균을 배양하여 다시 닭들에게 주사하였다. 그러자 배양된 지 오래된 세균을 한 번 주사했던 닭들은 여전히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세균을 처음으로 주사한 닭들은 병에 걸려 곧 죽어 버렸다. 파스퇴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세 알아차렸다. 우연히 그는 세균을 쇠약하게 만들고 그 독성을 제거했던 것이다. 약화된 세균은 닭에게 약한 콜레라만 일으키고는 독성이 강한 정상 세균의 공격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 준 셈이다.

그의 발견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과 일치하였다. 그것은 홍역, 천연두, 페스트에 한 번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은 같은 병에 다시 걸리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파스퇴르의 발견은 그의 시대 이전에 이루어진 주요한 의학적 발견 중 하나인 제너의 종두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

일찍이 중국인과 아랍인은 심하지 않은 천연두의 부스럼을 취하여 건강한 사람에게 감염시킴으로써 면역을 얻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18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영국 대사 부인이었던 몬태규 부인에 의해 서유럽에 소개되었고, 죄수와 고아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친 후 영국 하노버가의 왕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어떤 역사가는 산업혁명을 유발한 인구 증가의 한 원인으로 천연두 사망률의 저하를 들기도 한다.

제너는 우두에 걸린 소젖 짜는 소녀들의 상처에서 얻은 물질을 이용하여 천연두 예방법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제너는 ‘소’를 의미하는 라틴어 ‘vacca’를 따서 이 방법을 ‘vaccination’(백신요법)이라고 명명하였다. 그의 여생은 논쟁으로 점철되었고, 영국 왕립내과의학대학은 제너가 라틴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자격증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파스퇴르는 제너를 기리며 자신의 예방 접종법을 부르는 데 ‘백신’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다.

- ① 파스퇴르는 제너의 종두법을 응용하여 예방 접종을의 원리를 발견했다.
- ② 파스퇴르가 예방 접종을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는 우연이 큰 몫을 했다.
- ③ 파스퇴르는 제너 종두법의 토대에 놓인 원리를 발견하였다.
- ④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진 천연두 예방 기법이 산업혁명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 ⑤ 감염성 질병에 이미 걸렸던 사람이 같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6. 다음 글에서 언급된 학자들의 견해를 잘못 서술한 것은?

첨성대는 일본인 천문학자 와다(和田)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와다는 첨성대가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대라고 평가했다. 홍이섭도 와다의 견해를 수용하여 첨성대가 가진 천문대로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첨성대 정상부에 천문 관측을 위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김용운은 백제, 고구려나 중국, 일본에 같은 모양의 천문대가 없고 『삼국사기』 선덕여왕대에 천문 관측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첨성대를 천문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신 그는 첨성대가 신라 과학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며, 그 구조가 『주비산경(周髀算經)』에서 얻은 천문지식을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상원하방(上圓下方)의 형태는 음양 사상과 관계 있으며, 둘의 수 366개는 1년의 날수를, 28단은 28수(宿)를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이용범은 이러한 설을 부정하고 첨성대는 과학보다 신앙면에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 이유로 첨성대의 형태가 불교의 우주관인 수미산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평양 첨성대와 강화 첨성단이 초성대(醮星臺) 또는 제단이었던 것처럼 첨성대에서 성제(星祭) 같은 것이 행해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그 정상부에는 종교적인 상징물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김용운과 이용범이 공통적으로 첨성대가 실제 관측에 사용되기에 부적당하다고 본 반면, 남천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첨성대는 제단으로는 불편하고 부적당할 뿐 아니라 그 건조 양식도 『주비산경』과는 무관하며, 도형이나 수치를 임의로 해석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결국 남천우는 첨성대가 실제 천체 관측을 목적으로 축조된 실용적 성격의 상설 관측대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첨성대는 관측 시설로는 너무 조잡하고 오르내리 기에도 불편하다. 첨성대와 같이 구조역학적으로 극히 우수한 축조물을 쌓은 건축 기술로 그렇게 조잡하고 불편한 관측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첨성대가 규표(圭表)*로서의 기능이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은 여기서 출발한다. 필자는 첨성대는 태양 광선에 의하여 생기는 그림자를 측정하여 태양 고도를 알고, 그로부터 춘추분점과 동하지점 및 시각을 결정하는데 쓰인 측경대(側景臺)였다고 본다. 이 경우 첨성대가 중국 하남성에 있는 당대(唐代)의 주공측경대(周公側景臺)와 구조상 비슷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 규표(圭表) : 옛날 천체 관측기구의 하나

- ① 이용범은 첨성대를 과학 이외의 영역과 결부시킨다.
- ② 홍이섭과 남천우는 첨성대의 용도를 천문 관측이라고 보았다.
- ③ 필자는 첨성대의 건축 구조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④ 김용운과 이용범은 첨성대가 천문 지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 ⑤ 남천우는 첨성대에서 발견되는 도형과 숫자의 자의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7. <보기>에서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적은 것들로만 묶여 있는 것은?

지난 세기말 영국의 윌머트 박사가 복제양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세계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인간 복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 왔다. 우리는 바야흐로 우리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인지 종교계는 신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과학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으나 웬지 더 거대한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온 세상을 속밭으로 만들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제는 어디까지나 유전자 복제이지 생명체 복제가 아니다. 아무리 칭기즈칸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그가 칭기즈칸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대한 정복자가 될 약간의 포악한 성격은 타고날 지 모르나 세상이 완전히 판판으로 바뀐 현대에 그가 제2의 칭기즈칸이 될 확률은 거의 영에 가깝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를 여럿 복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남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복제인간은 출산 시간이 좀 많이 벌어진 쌍둥이에 불과하다. 나는 쌍둥이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만일 지금 나를 복제한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니 뱃속에서 몇 십년을 더 있다가 나온 쌍둥이 동생이 뒤늦게 태어난 것뿐이다. 몇 초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도 결코 똑같은 인간으로 자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늦둥이 쌍둥이 동생이 나와 완벽하게 똑같은 인간이 될 리 없다. 유전자는 나와 완벽하게 같을지라도 그 유전자들이 발현하는 환경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유전자 복제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유전자 조작의 문제이다. 복제인간은 한두 번 만들어 보다 시들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유전자 조작은 걸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마구 뻗어나갈 것이다. 유전자의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내가 가진 결함들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알게 될 때 그 유전자를 보다 훌륭한 유전자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왜 일지 않겠는가. 노화의 비밀이 밝혀져 다만 몇 개의 유전자만 바꾸면 몇 십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면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 < 보 기 > —
- ㉠ 유전자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현재의 인간복제기술이 인간의 유일성과 일회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 ㉢ 현재의 인간복제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 유전자 조작은 유전자 복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쁜 일이다.
- ㉤ 유전자 복제와 유전자 조작은 모두 유전자 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에서 혁명적 변화는 정상적 변화와 다르다. 혁명적 변화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사용되던 개념들로는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발견들을 동반한다. 과학자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의 자연현상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기술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뉴턴의 제2 운동 법칙의 발견이 이러한 변화에 해당한다. 이 법칙이 채택하고 있는 힘과 질량의 개념은 이 법칙이 도입되기 전까지 사용되던 개념들과는 다른 것이었고, 이 새로운 개념들의 정의를 위해서는 뉴턴의 법칙 자체가 필수적이었다.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비교적 단순한 또 하나의 사례는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전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태양과 달은 행성이었고 지구는 행성이 아니었다. 전이 이후에 지구는 화성이나 목성과 마찬가지로 행성이 되었고, 태양은 항성이, 그리고 달은 새로운 종류의 천체인 위성이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 내의 개별적인 오류를 교정한 것이 아니다. 이 변화는 뉴턴 운동 법칙으로의 전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 자체의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된 자연 법칙 속의 몇몇 용어들이 자연에 적용되는 방식도 변화였다.

- ① 과학은 혁명을 통해 진보한다.
- ② 과학 용어의 의미와 지시 대상은 가변적이다.
- ③ 과학의 목적은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 ④ 정상적 변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반대 사례를 무시한다.
- ⑤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프톨레마이오스 이론보다 우월하다.

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약 1만 2천년 전쯤에 젖이 나오는 동물들이 중동에서 사육되었다. 인간은 처음으로 다른 동물에서 젖을 짜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초창기 젖을 짜먹던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음식을 낱것으로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게 만들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치즈로 만들어야 했다. 발효는 락토오스를 수크로오스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어른들은 동물의 젖을 먹기 위해 락타아제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중동에서 동물의 젖을 짜먹는 사람들이 칼슘 흡수에 락타아제가 끼치는 효과를 잃었다고 해서 종족 번식에 지장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필요한 비타민 D를 햇빛에서 얻고 칼슘은 잎새 푸른 야채에서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유대인, 아랍인, 그리스인, 수단인 그리고 남아시아인들이 발효가 되지 않은 우유를 한두 잔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 것이다. 동물의 젖을 짜먹는 사람들이 북유럽으로 확산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이를 불문하고 락타아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종족 번식률의 현격한 차이와 연결되게 되었다. 북쪽 지방에서 동물 젖을 짜먹는 사람들은 안개가 자욱한 환경에서 살며 거의 일년 내내 추위 때문에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한다. 그들은 생선이나 바다 포유류를 통해 비타민 D를 얻을 수도 없었고, 칼슘을 섭취할 잎새 푸른 야채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발효되지 않은 우유를 많이 마셔도 소화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나타나 뼈를 정상적으로 발육시킬 수 있었으며, 구루병이나 공중 같은 질병에 덜 걸리게 되었다.

- ① 생태학적인 제약으로부터 유전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② 락타아제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③ 락타아제는 락토오스를 소화 가능한 형태로 분해한다.
- ④ 중동 사람들은 전 연령에 걸쳐 락타아제가 결핍되어 있다.
- ⑤ 비타민 D는 피부를 태양에 노출시킴으로써 체내에서 합성된다.

10. 다음 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삼가 들으니, “땅으로 넘어진 사람은 땅으로 인하여 일어나 난다”고 하였으므로, 땅을 떠나 일어나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일심(一心)을 깨닫지 못하여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요, 일심을 깨달아 끝없는 묘용(妙用)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이다. 미혹함과 깨달음이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요(要)는 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마음을 떠나 부처를 구하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침저녁으로 행한 것을 돌이켜 본즉, 불법을 핑계로 나와 남을 구별하여 이익을 도모하기에 급급하고 풍진(風塵)같은 세상일에 골몰하여 도덕을 닦지 않고 의식(衣食)만을 허비하였다. 그런즉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득이 있겠는가. 아아! 무릇 이 세상을 떠나려 하면서도 속세를 벗어난 수행을 하지 못하면, 한갓 필부(匹夫)에 그칠 뿐 대장부의 뜻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내가 오래 전부터 이를 크게 탄식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맞는 동학(同學) 십여 인과 더불어 “이 모임을 파한 후에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항상 선정(禪定)을 익히고 지혜를 닦는 데 힘쓰며, 예불하고 불경읽기와 노동하기에 힘쓰자”고 결의하였다. 하지만 그 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혹은 죽기도 하고, 혹은 병들기도 하고, 혹은 명리(名利)를 구하여 모이지 않으므로 그 기약을 이루지 못한 지가 십 년이 되었다.

이제 남은 승려 삼사 인과 함께 원하노니, 불교나 유교나 간에 세속을 싫어하고 뜻이 높은 사람으로서 번뇌를 벗어나 마음 닦는 도에 전념하려는 뜻을 가진 이라면 비록 지난 날 결의한 인연이 없다 해도 이제 함께 결사(結社)에 동참하기를 허락한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공부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생각을 모아 마음을 관조하는 데 힘쓰면서 함께 바른 인연을 닦아 나간다면, 불경에서 이른바 “들끓는 마음이 쉬는 곳이 바로 보리(菩提)이다. 성(性)이 깨끗해지고 오묘해지는 것은 남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질 것이다.

- ① 중생의 미혹함과 부처의 깨달음은 ‘일심’에서 갈린다.
- ② ‘대장부의 뜻을 세우는 것’은 ‘부처를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③ ‘끝없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일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④ 출가하여 ‘바른 인연’을 닦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 ⑤ ‘속세를 벗어난 수행’을 함으로써 ‘들끓는 마음이 쉬는 곳’에 이를 수 있다.

11. 다음 글에 담겨 있는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사상 체계의 제일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正義)는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善)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빼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 하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라야 한다. 이 때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란 전통적 사회계약론이 가정한 자연상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에 실재했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 원초적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라 불리는 것인데, 말하자면 계약 당사자 중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떤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이런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된다. 무지의 장막이 필요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무지의 장막에 의해 아무도 타고난 운수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해 지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 때문에 비롯되는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지만 자연적 우연성 때문에 귀결되는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이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 누구이든 간에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이유만으로 이득을 볼 수 없으며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은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
- ②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 ③ 모든 사회적, 자연적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다.
- ④ 천재의 재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자산이다.
- ⑤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타고난 행운에 의한 이익도 정당화 된다.

1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지구, 달, 태양의 운동이 매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식은 비교적 먼 미래까지 분 단위 이하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 일식은 사로스 주기라고 알려져 있는 6585.32일, 다시 말해서 약 223 삭망월마다 반복된다. 한 사로스 주기마다 일정한 비율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 (월식 29회, 개기 일식 10회, 부분 일식 14회, 금환 일식 17회). 만일 사로스 주기가 정확히 6585일이라면 사로스 주기마다 지구상의 같은 지점에서 일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0.32일(약 8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지구가 117°만큼 더 자전하므로 일식이 일어나는 지점도 달라진다. 따라서 일식 자체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없게 된다.

개기 일식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연적인 결과이다. 지구의 위성인 달이 태양보다 1/400 정도로 그 크기가 작지만, 현재 시점에서 달은 태양보다 우리에게 400배 정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 떠있는 달과 태양은 겉보기 크기가 거의 비슷하여 개기 일식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다. 태양계 내의 행성이나 위성의 궤도는 그들 간의 상호 작용 또는 혜성의 근접에 의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지구와 명왕성을 제외하고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는 행성이 없다. 그러나 명왕성은 지구에 비해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지구에서와 같은 장관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화성, 목성, 토성 등의 다른 행성에서는 위성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성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개기 일식은 미래의 상당한 기간 동안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 ② 일식 위치가 매번 바뀌는 현상은 사로스 주기의 소수 부분 0.32와 관련이 있다.
- ③ 명왕성에서도 일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주기는 사로스 주기와 같을 것이다.
- ④ 만일 달이 현재의 위치보다 지구에서 두 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개기 일식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 ⑤ 지구상의 특정 위치에서 일식을 관찰하기보다 지구 전체로 생각하는 것이 일식의 주기를 알아내는 더 쉬운 방법이다.

13. 다음 글에서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옛날 중국의 정전법(井田法)은 대단히 훌륭한 제도였다. 경계(境界)가 한결같이 바로잡히고 모든 일이 잘 처리되어서 온 백성이 일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병사를 찾아서 끌어모으는 폐단이 없었다. 지위의 귀천과 상하를 논할 것 없이 저마다 그 생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로써 인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순후해졌다. 장구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국운이 잘 유지되고 문화가 발전되어 간것은 이러한 토지제도의 기반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후세에 전제(田制)가 허물어져서 토지 사유의 제한이 없게 되니, 만사가 어지럽게 되고 모든 것이 이에 상반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해보겠다는 군주가 있다 해도 전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성의 재산이 끝내 일정할 수 없고, 부역이 끝내 공평하지 못하며, 호구가 끝내 분명하지 못하고, 형벌이 끝내 줄어들지 못하며, 뇌물을 끝내 막을 수 없고, 풍속이 끝내 순후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되어서 좋은 정치가 행해진 적은 일찍이 없었다.

대체 이와 같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토지는 천하의 근본이다. 큰 근본이 잘 되면 그에 따라 온갖 법도가 한 가지도 마땅하지 않은 것이 없고, 큰 근본이 문란해지면 온갖 법도가 따라서 한 가지도 마땅함을 얻지 못한다. 진실로 정치의 본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면, 천리(天理)와 인사(人事)의 이해득실이 이것에 귀착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 후세의 뜻있는 자가 지금이라도 한번 옛 제도를 시행해 보고자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가는 곳마다 산과 계곡이 많아서 땅을 정전으로 구획하기 어렵고 또한 공전(公田)과 채지(采地)*의 분배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 채지 : 귀족들에게 주던 토지

- ① 좋은 정치를 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 ② 정전제가 무너진 것은 대토지소유 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 ③ 새로운 토지 제도를 수립하려면 지형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도 정전제와 같은 훌륭한 토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⑤ 토지 제도가 바로 세워지면 사회·경제가 안정될 뿐 아니라 문화도 발전한다.

1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지난 300만년 동안 인간의 뇌는 3배나 커져 고등한 존재가 됐지만 골반은 오히려 좁아졌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다리와 다리 사이가 좁아졌고 골반도 따라서 좁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출산 자체가 극히 위험하고 힘들어지게 되었다. ‘커진 두뇌’, ‘좁아진 골반’이라는 문제를 우리 조상은 ‘미숙아 출산 전략’으로 풀었다.

보통 포유류는 뇌가 성체 뇌 용적의 45% 정도 됐을 때 세상에 나온다. 하지만 인간은 어른의 뇌 용적의 불과 25%일 때 태어난다. 만일 다른 동물처럼 태아가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세상에 나온다면 사람의 임신기간은 21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태어난 아기의 뇌는 태아였을 때와 같은 속도로 급성장 하다가 생후 1년 무렵부터 뇌의 성장이 둔화되며, 이 때 비로소 걷기 시작한다.

원시시대에 태아에게 인큐베이터 노릇을 한 것은 부모의 강한 결속과 보살핌이었다. ‘미숙아’를 키우면서 난교습성이 일부일처제로 바뀌었다고 진화인류학자들은 본다.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잘 돌보는 종족만이 살아남았고 자손을 남긴 것이다.

포유류 가운데도 일부일처제인 것이 3~5%에 불과하다. 소나 말 같은 대부분의 포유류의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녀 굳이 일부일처제가 필요 없다. 한편 지구상에서 자식에게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동물인 새는 90%가 일부일처제다.

일부일처제 동물은 암컷의 ‘배란 은폐’가 특징이다. 암컷이 배란기가 언제인지 숨김으로써 발정기가 아닌 때도 성교가 가능해졌다는 설명도 있다. 자주 성교를 하는 게 공교한 일부일처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다.

- ① 배란 은폐는 일부일처제 정착과 연관성이 높다.
- ② 인류의 경우 일부일처제는 종족 보전에 기여했다.
- ③ 인류는 직립보행, 뇌 용적의 증가, ‘미숙아 출산’ 등으로 인해 일부일처제로 진화하게 되었다.
- ④ 인류의 뇌 용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미숙아’ 출산 전략과 일부일처제의 정착으로부터 비롯되었다.
- ⑤ 인류에게 난교 습성이 지속되었다면 부모가 ‘미숙아’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하늘이 금수(禽獸)에게는 발톱과 뿔을 주고, 단단한 발굽과 날카로운 이빨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원하는 것을 얻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환난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람은 별거숭이로 태어나서 연약하여 마치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을 것처럼 만들었으니, 어찌하여 하늘은 천하게 여길 데는 후하게 하고 귀하게 여길 데는 박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주어 그것으로 기예(技藝)를 습득하여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능력을 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인(聖人)이라 하더라도 천 명이나 만 명의 사람이 함께 의논한 것을 당해낼 수 없고,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아름다운 덕을 모조리 갖출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기예가 정교하게 되고, 세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기예가 더욱 공교(工巧)하게 되니, 이는 사세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벽한 촌에 사는 사람은 읍에 사는 사람만 못하고, 읍에 사는 사람은 도회지에 사는 사람만 못하며, 도회지에 사는 사람은 수도 서울에 사는 사람만 못하다. 그런데 저 궁벽한 촌에 사는 사람이 옛날에 서울에 한 번 갔다가 우연히 아직 미숙한 기예를 보고 기꺼이 돌아와서 시험해 보고는, 대번에 아는 체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천하에 이 기예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고,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경계하기를 ‘서울에서 이른바 기예라는 것을 내가 모두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서울에서 다시 배울 것이 없다’ 하니, 이런 사람은 하는 일이 거칠고 조약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온갖 기예는 모두 옛날에 중국에서 배웠던 것인데, 수백 년 이후로 딱 잘라 끊듯이 다시는 중국에 가서 배워 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신식 기예는 날로 증가하고 달로 많아져서 수백 년 전의 중국과 다른데도 우리는 모르는 것을 묻지도 않고 오직 예전의 것만 만족하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그리도 게으르단 말인가.

- ① 예전에 그랬듯이 우리는 중국의 새로운 기예를 배울 필요가 있다.
- ② 서울에서 배우면 기예가 거칠고 조약하므로 더 넓은 곳에 가서 배워야 한다.
- ③ 하늘이 사람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준 것은 성인의 도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 ④ 게으른 자가 서울이나 중국에 가서 발전된 기예를 익히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박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 ⑤ 기예는 변화되지 않으면 굳어져 조약해지므로 기예를 익히려는 사람은 옛 기예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 원리를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1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은하수로부터 오는 전파는 일종의 잡음으로 나타나는데, 천둥이 치는 동안 라디오에서 들리는 배경 잡음과 흡사하다. 전파 안테나에 잡히는 전파 잡음은 전파 안테나 자체의 구조에서 생기는 잡음, 안테나의 증폭회로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잡음, 지구의 대기에서 생기는 잡음과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별처럼 작은 전파원의 경우는 안테나를 파원 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그 부근의 허공에 번갈아 돌려보며 비교함으로써 안테나의 구조나 지구의 대기에서 비롯되는 잡음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잡음은 안테나가 파원을 향하는지 또는 파원 주위의 허공을 향하는지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은하수로부터 오는 고유한 전파를 측정하려 했기 때문에, 장치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일체의 잡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부하 장치’라는 것을 사용했다. 이것은 안테나의 전파 출력을 냉각된 인공 파원에서 나오는 출력과 비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증폭회로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잡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펜지어스와 윌슨은 지구의 대기로부터 전파 잡음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그 잡음은 안테나가 가리키는 방향의 대기의 두께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안테나가 천정(天頂) 쪽을 향하면 더 작고, 지평선 쪽을 향하면 더 크다. 이렇게 생기는 잡음은 별의 경우처럼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어 봄으로써 찾아낼 수 있다. 이 잡음을 빼고 나면, 이로부터 안테나의 구조에서 생기는 잡음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봄, 펜지어스와 윌슨은 놀랍게도 7.35센티미터의 파장에서 방향에 무관하게 상당한 양의 전파 잡음이 잡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또 이 전파 잡음이 하루 종일 그리고 계절의 변화와 무관하게 늘 일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관측된 전파 잡음이 방향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이 전파가 펜지어스와 윌슨의 원래 기대와는 달리 은하수가 아니라 우주의 훨씬 더 큰 부분에서 온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암시했다.

- ① 지구 대기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은 방향 의존성을 갖는다.
- ② ‘냉부하 장치’를 사용하면 안테나의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잡음이 없어진다.
- ③ 펜지어스와 윌슨은 은하수가 고유한 전파를 방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④ 지구의 공전 및 자전과 관계없이 7.35센티미터의 파장에서 전파 잡음이 감지된다.
- ⑤ 전파원과 그 주변의 허공에서 나오는 전파를 비교하여 전파원의 고유 전파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7.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장수왕 2년(414년)에 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고구려의 건국 시조가 하늘의 최고 주재자인 천제(天帝)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하백(河伯)의 딸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황천지자(皇天之子)라고 표현한 것 역시 하늘에 직접 닿는 천자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의 천자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역시 5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는 앞서 살펴본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없던 신화적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데, 일월지자(日月之子)가 그것이다. 고구려를 세운 추모왕(주몽)은 하늘의 일월(日月)이 내린 천자이니 이 나라야말로 천하 사방의 중심이요,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일월은 하늘의 대변자로 인식되므로 하늘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나, 하늘의 존재를 일월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관점이 조금 이동되어 있다. 5세기 전후에는 이미 고분 벽화 속에 일월성수도를 그리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스러움의 근원을 구체적인 천체에서 구하고자 하는 천문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년) 고구려본기에는 기존에 없던 해모수 신화가 삽입되어 주몽이 천제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던 해모수(解慕漱)와 하백의 딸 유화(柳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면 주몽은 천자가 아닌 천손(天孫)이 된다. 그러나 같은 책에서 주몽 자신이 천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천자 관점과 천손 관점이 혼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각국사 일연의 『삼국유사』(1281년) 고구려조에 실린 주몽 신화에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와 동일한 혼합구조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삼국유사』 왕력편에서 주몽을 단군의 아들이라 하여 단군과 해모수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손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작업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동명왕편」(1192년)에서 발견된다. 이규보가 고려초 간행된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정독하여 지었다는 「동명왕편」에서는 ‘해동의 해모수는 진실로 하늘의 아들(海東解慕漱眞是天之子)이며 주몽은 하늘의 손자이자 하백의 외손(天孫河伯甥)’이라 하여, 천제-해모수-주몽으로 이어지는 일통계보를 만들었다. 이규보 뒷시대 인물인 이승휴의 『제왕운기』(1287년)에는 이러한 천손 관점이 정착되고 있다.

① 고구려 건국 시조에 대한 신화화 과정에서 고구려의 왕을 천하의 중심으로 놓는 사상을 볼 수 있다.

② 고구려 건국 시조에 대한 신화화 작업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거나 전승 주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다.

③ ‘황천’ 또는 ‘천제’라는 관념적인 표현을 ‘일월’로 표현하는 것에는 구체적 대상에서 성스러움의 근원을 찾으려는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④ 주몽을 천제지손(天帝之孫)으로 보는 인식은 『삼국사기』에서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거쳐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 정착되었다.

⑤ 신화 계보상 해모수와 단군이 이명동인(異名同人)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 인식으로 인하여 한국사에서 천제-해모수-주몽으로 이어지는 일통(一統) 신화가 시작되었다.

18. 다음 글에 나오는 논증을 반박하는 것이 아닌 것은?

윤리와 관련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광범위한 불일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있어 왔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육식이 올바른지 여부를 두고 한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굉장히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판단은 시대마다 아주 다르기도 하다. 심지어 우리는 동일한 문화와 시대 안에서도 하나의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윤리적 기준은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상대주의의 핵심 논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적 상대주의가 참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①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② 윤리적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윤리적 기준도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윤리적 상대주의가 옳다고 해서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이 항상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④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문화에 따른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부 윤리적 기준은 보편적으로 신봉되고 있다.

⑤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 올바른 판단은 하나뿐이며, 그런 올바른 판단을 옳게 만들어 주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1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후기 산업사회에서 인터넷 폭증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완벽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일지는 몰라도, 사회학적 연구물 가운데에는 이미 그 파급 효과를 진단한 내용들이 있다. 2000년 2월의 출판물로서 4,000명이 넘는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조사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들은 비사용자나 사용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족생활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시간을 적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가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였으며, 적어도 주당 5시간을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규칙적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을 파악하였다. 첫째, 인터넷은 다른 형태의 대중매체에의 접근을 멀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60%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이제는 줄어들었다고 말했으며, 1/3은 신문 읽는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인터넷은 가정과 직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규칙적 사용자의 1/4은 재택근무 형태로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한편, 직장 근무 시간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저자에 의하면, 우리 삶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막힘 없이 '지속해서 흘러가는' 형태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직장인들은 이제 인터넷을 '정규' 근무 시간에 더 많이 사용하며, 그 결과로서 하루 근무를 마감함과 더불어 책상 정리를 하는 대신에 일감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보 기>

- ㄱ.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적어도 주당 5시간을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 ㄴ.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의 20%는 신문 구독 시간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 ㄷ.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14%가 재택근무 형태로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 ㄹ.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의 변화가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ㅁ.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 외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 ⑤ ㄱ, ㅁ

정답 및 해설

1. ⑤

지문이 다소 난해하기에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심생각을 찾고 거기에서부터 답을 음미해 보면 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중심생각은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는 근거는 의견들 중에 서열이 있기 때문이다. 토대를 다시 검토해 보면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면,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거짓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무너진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① ②번이 답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②번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켜 놓은 형식의 함정이다. ③번은 지문 중에 “모든 의견이 거짓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잘못 읽으면 빠질 수 있는 심정적 단정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④번 역시 ③번과 비슷한 유형의 함정이다. ⑤번이 의견 사이의 ‘서열’을 인정하는 옳은 진술이다.

▶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

추상적이고 난해한 지문을 내세운 문제는 선택지도 난해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선택지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문제는 ①번과 ⑤번만 보면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 두 진술은 서로 모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의견들 사이에 쌍방향 의존관계가 있다면 토대가 되는 의견이 그 사람의 다른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거짓이 되고, 토대가 되는 의견이 그 사람의 다른 의견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의견들 사이에 쌍방향 의존관계가 있다는 것이 거짓이 된다. 문제를 읽다가 가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만약 이런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답을 찾을 확률이 높다.

02. ⑤

<보기> 중의 ㉠과 ㉡이 함정이다. ㉠의 경우 지문에서 “엡실론 B는 가장 가깝고 가장 밝은 T왜성인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교묘하게 바꾼 진술이다. 즉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아니라 ‘T왜성 중에서’ 가장 밝은 T왜성인 것이다. 필자가 분류한 함정 유형 중에서 ‘잘못된 강조’의 함정이다. ㉡은 T왜성이 “행성과 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쇠퇴해 가는 진화과정의 중간에 있다”는 것으로 바꾼 진술이다. ‘잘못된 수식어’의 함정이다. ㉢은 명백히 잘못된 진술이다. 따라서 ㉠㉡㉢이 잘못된 진술이다.

03. ②

②번이 전형적인 함정이다. 남북전쟁에서 보호무역 정책에 반대한 남부가 패배했고, 결과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남부가 패배한 원인이 ‘자유무역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지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심정적인 단정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04. 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미묘하기 때문에 함정을 파기가 쉬운 지문이다. 저자는 1) 인간본성의 차이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사회적 가치) 2) 인간의 본성이 백지라는 견해, 즉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견해도 반대하고 있다(생물학적 사실). 결국 저자의 견해는 “문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면 결국 차별, 억압, 대량 학살이 용인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고방식에 있다.”라는 말 속에 집약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생물학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자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 ① ② ③번이다. 이 진술들은 사회적 가치의 훼손을 생물학적 사실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들이다. ④번은 생물학적 사실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 진술이다. ⑤번이 저자의 생각과 일치한다.

05. ①

심정적 단정을 유도하는 함정의 전형적 사례다. 파스퇴르의 발견이 제너의 종두법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를 복원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발견 자체는 제너의 종두법과 상관없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06. ④

④번이 함정이다. 넷째 단락의 첫 문장, “김용운과 이용범이 공통적으로 첨성대가 실제 관측에 사용되기에 부적당하다고 본 반면”에서 이러한 생각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관측에 사용되기에 부적당하다”는 것과 “천문지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둘째 단락을 보면 김용운은 “첨성대가 신라 과학의 기념비적 상징물이며, 그 구조가 「주비산경(周髀算經)」에서 얻은 천문지식을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07. ③

이 글의 저자는 인간 복제기술에 대한 우려가 과학적으로 볼 때 근거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 ㉠과 ㉡이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진술이다. ㉢은 당연히 저자의 생각과 상반된 견해다. 그리고 ㉣에서 말하는 ‘유전자 결정론’은 지문 속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 옳지 않은 진술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이다. 저자가 유전자 복제보다 유전자 조작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덕적으로 더 나쁘기’ 때문은 아니다. 잘못된 수식어의 함정이다. ㉤㉥㉦이 잘못되었는데 선택지는 두 개 항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③번이 답이 된다.

08. ②

③④번은 지문의 논지에서 벗어난 진술로서 쉽게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①번은 글의 서두에서 ‘혁명적 변화와 정상적 변화’ 모두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번이 문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보다 우월하다”는데 반기를 들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은 지문에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더라도 이 진술은 답이 될 수 없다. 심정적 단정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②번이 답이 된다. 동일한 용어라도 혁명적 변화를 통해 대치된 이론체계 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용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09. ④

이 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락타아제의 결핍이 문제되는 연령은 성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른들은 동물의 젖을 먹기 위해 락타아제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 단락 중간에 “비로소 나이를 불문하고 락타아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언급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동 사람들이 전 연령에 걸쳐서 락타아제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④번 진술이 잘못되었다. 둘째 단락 첫 부분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심정적 단정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나머지 중 ②③⑤번은 지문에서 쉽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진술들이다. ①번의 경우, 비타민 D나 칼슘을 섭취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 생태학적인 제약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유전자의 변형을 가져와 락타아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연령의 주민들이 변화하게 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참이라 할 수 있다.

▶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

이 지문을 읽고 “락타아제 결핍이 문제되는 연령이 성인이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④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지문을 읽고 위 사실을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선택지들을 다 읽고 답을 결정하는 국면에서는 “아, 지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지문이 근거가 되고 선택지가 결과가 되는 일방적인 관계로만 문제를 보면 안된다. 선택지 속에 오히려 힌트가 숨어 있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10. ④

④번이 ‘심정적 단정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셋째 단락을 보면 ‘빨빨이 흩어지게 된 것’이 결의를 지키지 못한 원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바른 인연’을 닦기 위해서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 단락에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공부하지는 못하더라도’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 더 확실하다.

11. ③

이 글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글이다. 첫째 단락에 잘 나와 있듯이 롤즈의 정의론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원칙 아래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왔다. 다시 말해 정의론은 사회적 윤리에서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 보다 ‘정의’ 특히 ‘불평등’을 지양하는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우연성에서 비롯된 불평등 외에 자연적 우연성에서 비롯된 불평등까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본다. 원초적 입장이나 무지의 배일이라는 장치는 이런 우연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①②④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면, 올바른 진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⑤번은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이 지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이해하면 옳은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번이 함정이다.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문제다. 정의론에서 거부하는 불평등은 우연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이고 그 불평등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놀고먹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향유할 때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12. ③

①번과 ②번은 첫째 단락의 설명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번이 답이다. 다소 단순한 함정이 포함되어 있다. 전반부 얘기는 맞지만, 후반부가 옳지 않다. 즉 명왕성에서도 일식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로스 주기는 지구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잘못된 조합의 함정이지만, 그리 교묘하지 못한 함정이다. ④번은 달과 태양의 ‘겉보기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면 옳은 진술임을 알 수 있다. 달이 두 배 더 멀리 떨어지게 되면 달의 겉보기 크기는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⑤ 지구의 특정 위치에서 일식을 관찰하면 0.32일의 차이가 반영되지만, 지구 전체로 생각하면 그러한 점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식의 주기를 더 잘 알아낼 수 있다.

13. ②

②번이 함정이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함정이다. 전체가 허물어져서(원인) 토지사유의 제한이 없게 된 것(결과)이다. 지문이 어렵지 않아서 다른 선택지들이 옳은 진술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4. ④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뇌 용적 증가, 직립보행-좁아진 골반)과 그를 극복하려는 행위(미숙아 출산, 부모의 강한 결속과 보살핌)로 인해 일부일처제가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배란은폐와 잦은 성교라는 요인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①②③⑤번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④번은 전형적인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함정이다. 뇌 용적이 늘어난 것이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15. ①

일단 ④번과 ⑤번은 지문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에서 제외된다. ②번과 ③번은 다소 ‘유치한’ 함정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서울에서 이른바 기예라는 것을 내가 모두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서울에서 다시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 이는 특히 ‘서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말할 때 성인을 논하는 것은 ‘실사 성인일지라도’의 의미이지 생각하는 능력이 성인에게

만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다. 답은 ①번이다.

16. ②

아주 간단한 함정이 사용되었는데, 의외로 이 함정에 당하는 사람이 많다. ②번이 그것이다. 지문에서는 ‘냉부하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증폭회로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잡음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를 ②번에서는 “잡음이 없어진다”고 표현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의외로 이 차이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따라서 답은 ②번이다. ④번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선택지다. 왜냐하면 지문에서 ‘지구의 공전 및 자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깊은 학생이라면 “이전과 잡음이 하루 종일 그리고 계절의 변화와 무관하게”라는 표현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다른 표현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7. ⑤

함정 대비책에 더 없이 좋은 문제이다. ①은 첫째 단락을, ②와 ③은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④와 ⑤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천자가 아닌 천손이라 했고(이전에는 천자) 끝 단락에서 “천손 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작업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발견된다”라고 했으므로 삼국사기의 천제지손의 인식이 동명왕편을 거쳐 제왕운기에서 정착되었다는 진술이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천자와 천손의식이 삼국사기에 혼용되었던 것을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 천손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하여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보면(지문의 올바른 해석이다) 맞는 진술이다. ⑤지문을 보면 신화 계보상 해모수와 단군이 이명동인이라는 인식은 삼국유사에 보인다고 했고, 천손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일통계보(천제-해모수-주몽)는 동명왕편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여기서 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동명왕편(1192년)은 삼국유사(1281)보다 시기가 앞선 사서이다. 그러므로 해모수와 단군이 이명동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일통신화가 시작된 게 아님은 분명하다. 삼국유사 이전에 이미 일통신화의 계보가 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동명왕편의 일통계보는 천손관점으로 완전히 재해석한 인식을 반영한 사서임을 유의해야 한다.

18. ③

논증 비판 및 반론에 관한 문제로서 함정에 유의할 문제

이다.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윤리적 기준이 달라지면 윤리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상대주의의 핵심은 올바른 윤리적 기준이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반박하면 된다. 윤리적 판단의 보편성을 들어 윤리적 기준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 된다. 한 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다른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굉장히 다르다고 했으므로 ①의 반박은 적절하다. 윤리적 기준이 달라지면 윤리적 판단이 달라진다는 주장이므로 ②④의 반론도 적절하다. 올바른 윤리적 기준은 상대적이라 했으므로 ⑤에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한 것은 글에 대한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있다. ③이 함정이다. 언뜻 보면 위 글을 반박하는 주장 같아 보인다. 윤리적 기준이 다르면 윤리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윤리적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이 윗글을 반박하는 주장으로 매력적이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심정적으로 글을 읽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항상 논리적이고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윤리적 기준이 사람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주장이지 사람들의 윤리적 판단이 항상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윤리적 판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19. ④

퍼센트 혹은 분수로 표현한 수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보기>가 구성되어 있다.

함정 1 : 둘째 단락에서 “응답자의 55%가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였으며, 적어도 주당 5시간을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규칙적 사용자’로 분류했다”는 부분에서 함정의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응답자의 55%가 인터넷을 주당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함정 2 : 셋째 단락에서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60%는 TV시청시간이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1/3은 신문 읽는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1/3은 60%의 1/3이 아니라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 중의 1/3이다.

함정 3 : 네 번째 단락에서 발견되는데 함정 1과 관련되어 있다. 규칙적 사용자가 응답자의 55%라고 오해하면 재택근무자는 응답자의 1/4인 14%가 된다.

이렇게 볼 때 ㄱ, ㄴ, ㄷ이 모두 함정이다. ㄹ과 ㅁ만이 옳은 진술이다.